
第124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第6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1年2月22日(木) 午後2時

場所 文化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世宗文化會館業務報告의件
 2. 市立博物館業務報告의件
 3. 市立美術館業務報告의件
-

審査된案件

1. 世宗文化會館業務報告의件 ... 2面
 2. 市立博物館業務報告의件 ... 2面
 3. 市立美術館業務報告의件 ... 2面
-

(14時 09分 開議)

○委員長 劉俊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自治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文化教育委員會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위원 여러분, 금번 제124회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에 참석하시어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호응속에 오늘로서 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1. 2001年度世宗文化會館所管業務報告의件
 2. 2001年度市立博物館所管業務報告의件
 3. 2001年度市立美術館所管業務報告의件

○委員長 劉俊相; 의사일정 제1항 2001年度 世宗文化會館 所管業務報告의件, 의사일정 제2항 2001年度 市立博物館 所管業務報告의件, 의사일정 제3항 2001年度 市立美術館 所管業務報告의件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表在淳 이사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업무보고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李鍾德 총감독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世宗文化會館 理事長 表在淳;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表在淳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劉俊相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문화회관은 오는 7월 초하루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속에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지 2주년을 맞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세종문화회관은 아시아 최고의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1978년 역사적인 개관 이래 20여 년 동안 우리 나라 공연예술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반목과 갈등의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은 문화의 세기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법인에게 있어서 지난 2년 동안은 대한민국 문화예술 일번지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세계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해서 기틀을 다지는 출발지였습니다.

이제 대망의 통일의 시대를 염원하고 남과 북의 활발한 문

화예술교류와 민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세종문화회관이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민족적 과제가 저희 법인에게 부여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모쪼록 세종문화회관이 민족과 문화예술계가 저희에게 부여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법인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總監督 李鍾德, 經營管理部長 姜錫洪, 公演藝術部長 趙誠振, 合唱團長 金秀雄, 舞踊團長 林鶴琬, 少年小女合唱團長 白天雄, 뮤지컬團長 李種勳, 劇團長 李泰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李鍾德 世宗文化會館 총감독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俊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表在淳 이사장님과 각 예술단체장은 좌석을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委員 있음)

자리를 이석해 주세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입니다.

존경하는 劉俊相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세종문화회관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욕이 넘쳤던 열정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기대와 성원 그리고 8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2000년이 힘든 때도 있었지만 매우

보람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달 1월 18일 MBC 주체 악극 애수의 소야곡 공연중 화재가 발생하여 심려를 끼친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현장을 수습하고 20일부터 28일까지 공연을 무사히 성황리에 마치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세종문화회관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세종문화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작년 임시회에서 수차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2001년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報告)

世宗文化會館 主要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단법인 世宗文化會館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鍾宣 市立博物館長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인사 올리겠습니다. 市立博物館長 李鍾宣입니다.

존경하는 劉俊相 문화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립박물관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여러 모로 각별히 지도해 주

신 덕분에 지난해에는 박물관 개관준비를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2002년도 상반기중 市立博物館을 개관함으로써 2002년서울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겠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의도하시는 바에 어긋나지 않게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박물관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幹部紹介:總務部長 李錫和, 學藝研究部長 尹在元)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박물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報告)

市立博物館 主要業務報告

(뒤에 실음)

.....
끝으로 위원님들이 대단히 심려가 많으셨겠습니다만 문화재 구입 보도관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올릴까 합니다.

.....
(報告)

文化財購入 報道關聯報告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제 복장에 대해서 크게 사죄드리겠습니다.

제가 점심 때 일을 하다가 시간에 맞추어 오느라고 이런 복장이어서 여러 가지 결례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劉俊相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이러한 업무보고를 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린 저희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우선 이쪽 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報告)

市立美術館 主要業務報告

(뒤에 실음)

.....

오늘은 보고를 이만 그치겠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劉大運 委員長님, 그 다음에 李東秦 委員長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劉大運 委員長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大運 委員; 劉大運 委員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22쪽, 1999년 12월 31일 오디션 결과 단원 8명, 악장 1명을 재위촉에서 제외한 결과 이 분들이 수공을

하지 못해서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는데 업무보고가 자세히 안되어 있어요.

냈는데 세종문화회관 측에서 졌는지, 복직명령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서류만 보면.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보면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회관 측에서 한 것 같아요. 맞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劉大運 委員; 여기서 보면 노동조합 설립단계에서 구제신청을 비교적 설립단계에서부터 설립을 못할 목적으로, 또는 설립을 하는 노동조합이라 할지라도 노동조합에 가입을 안 할 목적으로,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법 제39조제1항, 제3항, 제5항을 위반한 것 같은데 그래서 기인된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노동조합 운영에 문제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위촉을 해 주지 않은 제외를 시킨 데 따른 반발입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오늘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은 이미 이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市議會 업무보고에서 지난번에 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아마 여기는 생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는 세종문화회관이 재단법인으로 민영화됨으로 해서 소속되어 있는 예술단원들에게 좀더 기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새로운 각오 하에 오디션을 우리가 철저하게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취임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집단체제로,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더라도 결국은 그냥 그 단원들.....

○劉大運 委員; 아니,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자 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과거 4대 때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을 3년간이나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단지 제가 여쭙어 보는 핵심은 오디션에서 9명을 탈락한 데 따른 반발이나, 아니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 3, 5항을 위반한 내용이나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오디션 탈락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까.

○劉大運 委員; 노동조합에는 자율성을 보장했는데 구체신청을 낸 것입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그렇습니다.

○劉大運 委員;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노동조합 설립일이 99년 9월 6일이 되었고, 오디션 결과 재위촉이 탈락된 것은 12월, 불과 6개월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다 치고요. 현재 2000년 4월 3일 중앙노동위에 구체 재심청구를 했는데 회관에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텐데요, 지금?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것을 취하했습니다.

○劉大運 委員; 취하했습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劉大運 委員; 그 내용이 나와야지요, 업무보고에. 그게 안 나오고 중간에 끊어지니까, 취하조건이 뭐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수공한 겁니까? 받아준 것이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劉大運 委員;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회한테 주어진 시간이 1차에 20분밖에 없거든요. 재정자립도를 보면, 98년도에 16.2, 99년도에 19.5, 2000년도 26,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1년도를 보면 약 7% 정도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정자립도만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세종문화회관 운영이 바람직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아직 점검해 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원래 예술이라는 것은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럼요.

○劉大運 委員; 세계의 유명한 파리 같은 경우에도 출연액이 한 30.40% 아직도 되고 있는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에도 166억 7,000만원을 출연을 했고 하나의 건의 같은 것이 맨 뒷면에 보면, 연간 10%씩을 감액토록 재단설립 시 서울시 방침으로 정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한 5.6년 안에 출연금이 거의 없어지는 이런 상황으로서 재정자립도는 100%를 내다볼 수 없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도 동시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다만 재정자립도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특성상. 그렇지만 운영비 쪽에서 세종문화회관의 인력을 죽 훑어보면 재단설립 이후나 재단설립 이전이나 별로 그렇게 변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재단설립 이후의 세종문화회관의 입장이나 이전과 이후의 입장이 어떻게 생각을 변화시켰고, 지금 쬐이면 인력에 대한 운영실태 문제가 파악이 되었을 것이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 인건비를 줄이면서 투자 쪽에 재정자립도를 높여갈 수 있는 이런 결론이 나왔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공연계획을 보니까 금년도에 3월에서 10월까지 12회에 걸쳐서 구민회관 공연을 하겠다는 업무보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0년도에는 몇 군데 했으며, 금년

에 12회 정도 되면 이미 자치구와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루어질 수 있는 상호간에 요구하는 해당자치구하고 상당한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 와서 구민회관에서 공연을 해 달라하는 신청 자치구는 몇 개며, 현재까지 확정은 되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따라서 더 늘려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과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世宗文化會館의 내부를 비교적 잘 아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많이 노후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대공연장 의자같은 것도 바뀌어야 될 필요성을 위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속에서 업무보고에 뭐가 나와 있어야 하나면 지난번에 화재사건이 발생했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劉大運 委員; 화재사건이 발생했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MBC에서 대관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불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세종문화회관측에서는 거기에 따른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상액이 100% 다 충당됐죠,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관을 받은 당사자들의 부실로 인해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MBC한테 세종문화회관이 보상을 받아야 되고 따라서 보험회사는 지출을 세종문화회관에게 한다 하더라도 MBC한테 다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보험법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현재 화재에 따른 보상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다툼 없이?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것은 지금 보험회사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또 과학기술처에서 화

재원인에 대해서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습니다.

○劉大運 委員; 화재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공연장을 사용하고 있던데, 먼저 여로.....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대로 했습니다. 이틀 동안 밤을 세워서.....

○劉大運 委員; 지장 없습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지장 없습니다.

○劉大運 委員; 아무 지장 없습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일부 훼손된 것뿐이기 때문에.

○劉大運 委員; 화재내용이 보도 내용과는 달리 경미했던 것입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아주 경미했습니다.

○劉大運 委員; 대충 世宗文化會館에서 판단한 내용은 화재로 인한 원상복구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약 13억 정도 들어 가는데 그 중에서 면막이 22년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다 노후돼서 다시 갈아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이 11억입니다.

○劉大運 委員; 보험가로 잡힌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보험가 금액은 그것을 다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 나올지는 보험회사하고 트라이중에 있습니다.

○劉大運 委員; 그것은 업무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험가라는 것이 자동차보험과 비슷하게 잡니다. 그렇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렇습니다.

○劉大運 委員;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총감독입니다.

○劉大運 委員; 자차에서 자동차 제공 안해 주시죠, 해 줘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렌트가를 쓰고 있습니다.

○劉大運 委員; 그런데 자동차 많이 가져보셨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보면, 첫째 구입할 때는 자차비용이 1,000만원짜리면 1,000만원짜리가 다 잡히지만 1년이 지난 후에는 감가상각이 계산돼서 다시 잡힙니다. 이 화재보험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업무보고 속에서 22년된 노후화 시설을 새로운 장비로 갖추려면 13억이 들어 간다는데 보험가를 모르고 있다면 업무과약을 잘못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저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측에서 감가상각비 이하 여러 가지 노후된 내용을 가지고 약 3억정도 지금 나오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만.....

○劉大運 委員; 보험증권에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劉大運 委員; 살펴보셨습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劉大運 委員; 안 살펴보신 것 같은데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밑에 직원한테 보고를 받기에는.....

○劉大運 委員;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증권을 한번 살펴보고 약관을 세부적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것 답변해 주십시오.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世宗文化會館이 재단법인되기 전에는 인원이 약 138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되

면서 138명을 84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결과 구조조정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작년도 총.....

○劉大運 委員; 답변을 더 세부적으로 해 주셔야죠. 인원은 줄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덧붙여 주셔야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이전은 몇 명에 인건비가 얼마였고 덧붙여 주셔야죠.

지원받으실 시간에 구민회관 공연에 대해서.....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작년도에 총11회 공연실적이 있었고 올해는 12회 계획이 세워졌는데 구청에 공문시행후 확정을 했고 구청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신청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공연할 때는 구청과 구체적으로 협의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劉大運 委員; 몇 군데나 확정됐습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지금 12군데가.....

○劉大運 委員; 그러면 확정 이후에 예산이 그렇게 경미하게 뒤따르니까, 이후에 자치구 사정이 허락돼서 한 두군데 더 좀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오면 공연계획 속에 넣을 수 있습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것은 또 다른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劉大運 委員; 불가능하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 확실히 된 것은 강동구, 서초구, 양천구 그리고 영등포구, 서대문구, 강남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劉大運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마무리로 답변해 주십시오.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법인 이전의 예술단체가 79

억을 써왔고 사무국이 29억이었습니다. 법인 이후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사무국이 30억 그리고 예술단이 70억 그래서 약 100억, 그러니까 법인 전에 108억이 법인 이후에는 100억으로 8억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劉大運 委員; 그러니까 이제 예산으로 보면 거의 인원수에 비해서 줄었다고 볼 수는 없죠, 그 정도 가지고.

그런데 다만 인원으로 볼 때는 고급인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급인력 충당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원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원 구조조정과 같이 예산액에서는 별 차등이 없는 이런 현상인데 고급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였습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고급인력이라는 것이 저희가 별도의.....

○劉大運 委員; 전문인력이라고 표현하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전문가라고 하는 예술감독을 계약직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저희가 별도의 이벤트공연이라고 해서 전문위원을 쓰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고급인력이라는 것은.

○劉大運 委員; 나중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건의사항을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공연장 안전관리에 소요예산이 271억 2,200만원 해서 5개년계획으로 하겠다, 이것은 기술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판단에 의한 것을 한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는 의사표명은 할 수 없겠는데 두 번째 예산감액 방침을 제고해 달라 이 내용은 현재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는 것을 보니까 출연금의 10%씩 감액은 지나친 경직된 시의 방침이 아니었나라는 생

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같이 또 서울시 관계당국자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본위원은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東秦 委員님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車星煥 委員님 준비해 주세요.

○李東秦 委員; 이왕 세종문화회관 답변하셨으니까 계속 제가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화재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아직 객관적으로 드러난 발표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조사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李東秦 委員; 그런데 그것이 큰 화재도 아니었는데 조사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해서 발생한 화재인지에 대해서 원인이 밝혀져야 이후에 재발방지책이나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대책이 나올 텐데 그 화재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그것이 자칫 큰 화재로 비화가 됐다고 한다면 세종문화회관에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주 다행스럽게 그 정도로 해서 그쳤기에 망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

무 소홀하게 지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화재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원인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십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것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일단은 관계기관에서 지금 화인에 대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함구를 하고 있을 뿐이지 MBC측에서나 저희측에서는 다 MBC에서 화재원인 발생을 그쪽에서 했다는 것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조사한측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쪽의 조사기관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거의 MBC쪽에 잘못이라는 것은 나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통보는 안 왔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래서 그것이 이후에도 큰 공연 이런 것들 중에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또는 공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관을 언론기관에서 특히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공연을 대관하는 큰공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많습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랬을 때 이번 이 사건은 상당히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론기관에 대해서 世宗文化會館이나 또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엄격한 원칙과 또 제한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확인되지 않으면서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용인되는 이런 문제는 없었는지, 만약에 그런 것이 요인이 돼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것을 귀감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관에서 공연을 하든간에 공연의 안전내지는 관람객들의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 부분에 관해서 만큼은 사전에 공연하기 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운 원칙, 안전과 관련된 수칙, 장비점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연후에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행을 차제에 혹시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고 힘 있는 기관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이런 관행이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의 소지를 안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이 대체로 드러난 이 마당에는 그 부분을 좀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화재와 관련해서 그 당일 저희 세종문화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총동원해서 우선적으로 119를 통해서 소방차를 부르기는 했습니다만 전직원이 나서서 대략 화재의 일부분을 소화기로 어느 정도 원인을 제거했습니다만 그날 밤 전직원이 7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밤을 세워서 이틀 후에 공연을 무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방화 관계되는 책임자를 그 동안에는 직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차장으로 승격시키고, 그리고 앞으로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연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방염 처리된 협회의 필증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필증만 가지고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화재의 그런 원인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현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 보는 그런 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어쨌든 이번 화재사건이 다행히 조기진화가 되고 크게 확대가 안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정말 소중한 귀감으로 삼고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그런 사건이 재발되었을 경우에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관부에서 최우수 문예회관상을 수상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동안 법인화 이후에 운영을 상당히 활성화하는 데 노력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이왕 활성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회관운영을 공연장 중심의 공연 개념에서 어떤 광화문이라고 하는 서울의 역사문화의 중심에 세종문화회관이 위치하고 있고, 또 그 일대에 우리의 문화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적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또 우리 서울시의 주요 문화예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세분 다 계십니다만 시립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이런 주요 문화기관들이 또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문화유산 유산들이 주변에 죽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경복궁이랄지 덕수궁이랄지 또는 고궁, 이런 문화유산들을 지역개념으로 접근해서 공연공간을 확대하고 하는 그런 기획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것은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그런 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개념에서 탈피해서 어떤 지역개념으로 이 공연에 외형을 확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게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서울시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무용협회 페스티벌이 있고 연구협회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국무용협회 페스티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무용협회 페스티벌, 연구협회 페스티벌이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통합을 해 가지고 저희 세종문화회관이 중심이 되어서 이 단체를 통합해서 공연예술 페스티벌로 승격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문예진흥원과 무용협회, 연구협회, 그리고 저희, 저희는 서울시를 대표해서 저희 세종문화회관이 참여해서 3차에 걸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연구협회, 무용협회에서도 서울시에서 서울공연예술 페스티벌로 승격을 시켜준다면 거기에 적극 참여하겠다, 그 대신에 서울시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어 서울시와 같이 협의과정중에 있고, 내년도에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5월 아니면 6월에 그 행사를 일단 내년에는 월드컵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민의 날을 앞뒤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서 동송동에 있는 문예회관과 세종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연예술 페스티벌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것도 일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간개념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고궁주변의 고궁이랄지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시의 주요 문화예술기관인 3기관이 서로 협조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협조해서 할 수 있

는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같이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東秦 委員;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박물관 관장님, 지금 올해 박물관 전시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전기소방공사가 앞으로 진행이 될 계획인데 박물관 준비팀이 이미 박물관이 완공된 이후에 그리고 관장님 취임하신 것이 박물관이 완공된 이후에 취임을 하셨지요?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네, 그렇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래서 지금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 과연 박물관의 건물이 구조나 외향이 박물관으로서의 특성에 맞는 건물인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완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해야 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내부전시시설공사 전기소방공사 등등도 발주자와 그리고 박물관을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시설공사의 설계내역이나 전기소방공사의 설계내역에 대해서 박물관 측에서 참여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혹시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어요?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설계가 끝나서 발주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부는 발주가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공사진행점검을 건설안전관리본부

가 저희를 대신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설치가 된 이후에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내용을 다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되어 있던 설계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합쳐서 22개월, 약 2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6개월 만에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에 쫓겨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진열장의 제작도면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실제로 제작할 때 어떤 차질이 생긴다 하는 문제를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지금 업체가 정해진 곳마다 제가 전체공정을 보니까 여유 있는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반영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초기서부터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항상 관 공사의 경우랄까, 특히 어떤 용도가 특수한 건물의 경우에 일반행정청의 건물이 아니라 박물관 내지 특별한 용도의 건물일 경우 그것을 운영할 주체와 실제 건물을 시공하는 그리고 감독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지어놓은 건물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영 아니올시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부시설을 다 뜯어 고치고 다시 한 다던가 이런 예산낭비 관행들이 그 동안에 누차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여기 박물관의 경우도 역시 비슷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시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기소방공사 같은 경우도 아직 이게 진행은 안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소방은 지금 아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운영할 주체가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를 해서 설계가 되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하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의견을 제시해서 변경되고 또 재시공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점이 바로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방설비 같으면 소방설비를 나중에 실제로 가동할 직원이 설계내용과 제작내용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면 더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실정이 특히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고급인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내용을 공사까지 점검할 정도의 지식이 없어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지원을.....

○李東秦 委員; 그 부분, 소방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꼭 박물관 직원을 통해서만 확인하려고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박물관과 같은 그런 특수한 건물의 소방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이 설계분야까지 전부 다 전문가는 아닐 것 아닙니까? 물론 기본적인 식견이 있겠지만 뭔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일반건물과 다른 특수한 소방설계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 건물에 필요한 설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설계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전에 이런 것들이 좀 점검이 되어야만 나중에 예산낭비가 없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그것을 꼭 직원을 통해서만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외부전문가를 의뢰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제가 답변을 다 끝마치기 전에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소방부분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직원의 능력은 떨어진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팀에서 설계내용을 점검을 하고 공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들어가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공사진행내용을 저희를 대신해서 점검을 해 주고......

○李東秦 委員; 일반적인 관행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어놓고 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이 생겼지 않아요?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조심하겠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하시라 이거예요.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네, 그러겠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리고 박물관을 도시역사박물관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진 것은 저는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 특수한 자기성격을 분명히 하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유물같은 경우도 도시역사박물관에 맞는 유물 그리고 그 대상이 대체로 어떤 것인지, 이런 방향이 잡히면 거기에 따른 구입대상이나 이런 것도 다른 박물관과는 차별화해서 목적의식을 갖고 구입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시역사박물관으로 성격규정을 한 지가 그렇게 많이 안 됐죠?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그렇습니다.

○李東秦 委員; 관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상당히 지난 다음에

이 성격규정을 하신 거죠, 내부적으로?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그렇지는 않고 처음에 박물관 기본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 때 서울시립대학의 서울학연구소에서 기본계획을 낼 때는 도시역사박물관으로 성격이 잡혀 있었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나 가고 또 유물도 거기에 따라서 차별화해서 구입한다거나 이런 과정은 별로 없었잖아요.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취임한 99년 6월 이후부터는 전시내용에 충실하자 해서 지금 현재 상설전시공간을 말씀드릴 땐다면 크게 4개 전으로 되어 있는데 전시품이 454점입니다.

○李東秦 委員; 잠깐만, 제 질문시간이 다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박물관의 성격에 맞는 그런 유물도 구입하고 또 구입한 이후에 전시도 하고 할 텐데 예전에 무차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실제로 도시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 성격에 별로 어울리지 않아서 그냥 전시가 안되고 높은 가격으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구입된 유물 중에서?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고려시대 유물이라든지 상설전시회에서 빠지는 부분들은 나중에 특별전같은 형태를 통해서 소화할 계획입니다.

○李東秦 委員; 아무튼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성격에 맞도록 유물구입 계획도 세우시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예산이 1.20억 들어가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구입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무한정 예산 투입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 전시 가능한 품목을 먼저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특별전시회나 이런 것은 나중에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도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문을 하실 텐데 지금 도난유물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현재로는 그것이 몇 단계를 거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李東秦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된 유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물 구입할 때 이것이 도난품인지 위작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확인을 하실 것 아닙니까?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매도자한테 매도신청서류를 받을 때 도난문화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각서같은 것을 받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 사건조사반이 있는데 그쪽에 신고되어 있는 도난유물목록을 대조해서 실물을 사진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도난관련된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정보가 혹시 유물평가 단계에서 나오지 않을까해서 3단계 과정에서 그런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지금 유일하게 객관적 확인절차는 문화재청의 조사반에 확인하는 것밖에는 지금 객관적인 절차는.....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현재로는 없습니다.

○李東秦 委員; 저는 그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분기별로 신고내역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자료가?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저희가 이제.....

○李東秦 委員; 어쨌든 신고된 도난유물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갔다가 박물관에서 도난유물인지 확인을 한다 이거죠?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그렇습니다.

○李東秦 委員; 저는 그 반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출장을 가서 확인합니다. 대전 문화재청까지 출장을 갑니다.

(劉俊相 委員長, 趙養鎬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趙養鎬; 李東秦 委員님 약속한 시간이 다됐으니까.....

○李東秦 委員;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養鎬; 보충질의 때 李東秦 委員님께서 질의해 주시고요.

車星煥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車星煥 委員; 車星煥 委員입니다.

기왕에 문화재 구입관련해서 질의가 진행중이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유물구입 공고를 한국일보에 내셨잖아요? 한 번 냈습니까?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공고를 낼 때 일간지 두 군데에 냈습니다.

○車星煥 委員; 어디에 내셨습니까?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한 번밖에 못 냈는데 예산 때문에 그랬습니다.

○車星煥 委員; 예산 때문에 한 군데밖에 못 냈다, 이거죠. 그

래서 신청한 것이 몇 사람이나 신청했나요?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車星煥 委員; 아니, 몇 점으로요?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데이터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그것 오기 전에 한국일보에다 작년 9월에 한 번 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접수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그렇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래서 예산이 안들고 공고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새서울소식인가 있잖아요.

그런 곳을 통해서 또는 우리 시의회 의회보도 있고 이런 데는 의뢰하시면 얼마든지 지면할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 점을 검토하셔서 물론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겠죠, 어떤 신문인가 확정되지 않았겠지만. 내시되 기존의 서울시의회에서 시민들에게 배부되고 있는 것을 의뢰를 하셔서 더 시민들에게 확산시키면 어떨까?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그렇게 하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렇게 하시고 구청과도 협조를 하시면 구에서는 전 구민에게 나가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것도 좀 협조하셔서 그것을 다음에는 이렇게 계획서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시민뉴스 시보, 관보에는 저희가 일부 실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공고가 많이 알려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렇게 하시고요.

문화재청하고 이렇게 업무협조를 하셔서라도 우리 박물관

에서도 도난된 유물 그것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본이랄까, 아니면 명부라도.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그쪽에서 사본은 주지 않고요. 저희가 지정문화재 그러니까 보물이상은 분명히 똑바로 확인이 됐는데 그냥 이름만 가지고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려가서 대조확인하고 그리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유물을 가지고 내려갑니까?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아닙니다. 사진을 가져가서 대조합니다.

○車星煥 委員; 사진으로 정확히 대조가 됩니까, 진품이?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어느 정도 고가의 비용을 하는 것 정도는 대충 비교할 수가 있고 물론 정확한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아니, 그것이 성의를 다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겠습니까?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물론 실물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실물을 들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안 심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는.....

○車星煥 委員; 문화재재청에서는 누가 하는가요?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유형문화재과에서 합니다.

○車星煥 委員; 유형문화재과 누가 하는가요?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담당자는 문화재 전담조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건공표가 된 서초경찰서에 문화재 사건조사반이 상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두 사람이 문화재에 대해서 완벽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인가요?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車星煥 委員; 공무원들 같은데요.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공무원입니다.

○車星煥 委員; 공무원 두 사람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마치 문화재청에서 확인해 주니까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대단하게 거기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해 주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올라가면 문화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또 계속 이렇게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다갔다할텐데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간 사진 가지고 그것도 또 진품도 아니고, 사진가지고 가서 확인해서 이것이 너무 절차가 허술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문화재청에서 확인 사인해 주면 문화재청에서 확인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상당히 어떤 쉬운 이야기로 해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거기 문화재청에서 얼마나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그 두 사람의 결정이 너무 허술하다 이거죠.

이것을 더 보완할 수 있게끔 우리 서울시위원회에 박물관에서도 예를 들자면 확인위원회랄까 심사위원회랄까 이런 것도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한번 더 확인을 거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도난품 확인.....

○車星煥 委員; 도난품도 그렇고 위조품도 그렇고요.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위조문제는 저희가 실무감정위원회에서 위조문제가 가려지고 도난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점을

저희가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작년도에 470여 점을 구입하는데 처음에 매도신청이 들어 온 것은 2,000점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량을 저희가 일일이 다 실물로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하고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조심은 하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한국화, 양화 소장작품 중에서 주로 양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입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향후 계획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화는 예를 들면 340점 그리고 양화는 510점을 이렇게 구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기증예상도 한국화는 55점, 양화는 101점 그리고 판화나 서예 이런 부분은 서예같은 부분은 아예 2003년까지는 구입도 기증도 아무 계획도 없거든요. 판화도 2002년까지는 기증도 구입도 계획이 없고,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거기에는 특별한 저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화다, 양화다 또는 판화다 하는 개념이 정말 애매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술의 유형의 흐름이 자꾸만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화, 양화라는 것은 한국화라는 것은 어떤 화선지에다가 묵화를 그렸다든가 먹으로 그렸다든가 그런 것이 되고, 양화라는 것은 캔버스에 오일을 발랐다든가 이런 것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표현양식의 수단이라든가 또는 방

식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화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는 금년도에 비율이 50, 80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는 한국화 50점에 기증은 5점, 또 양화는 80점에 기증은 2점, 사진은 5점, 조각, 그런데 서예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서예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서예라는 것이 예술의 전당에도 있고 그리고 미술관에서 서예를 다룰 경우에는 그게 그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예를 넣을 경우에는 어떤 전문 서예관이 있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다루던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을 구색을 맞추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저는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한국화는 50점이고 양화는 80점 아닙니까? 그리고 또 현재 작가들 추세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미술가 10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중 2.3사람 정도가 한국화를 그리고 한 7 대 3 그런 7 대 2, 더군다나 요즘에는 학교에서는 한국화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자꾸만 적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현재 추세가 그렇다 이거지요?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네.

○車星煥 委員; 지금 그러면 미술관에는 소장하고 있는 것이 주로 언제부터 가장 오래된 것이 언제 적 것이지요?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85년부터 수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車星煥 委員; 85년도부터 수집하기 시작했다고요?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네.

○車星煥 委員; 좋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오래된 것이 언제

적 작품이냐는 것이지요, 작품을 그린 시점이 확인 안된 것도.....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옛날 고화는 별로 없고요.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와서 구입을 한 것인데요, 지금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 1931년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운보 선생님 김기창, 말하자면 한국화지요, 그것을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1931년 작입니다. 그게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니까 옛날 것은 주로 없네요, 여기?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그것은 미술관의 역사 자체가 짧고요. 이제 그 15년 동안은 일종의 임시미술관 정도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예산관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본 성격구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설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가 그러니까 과도기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작품 수집에 있어서의 어떤 양식적이고 성격적이고 하는 소위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좌표계를 설정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작품을 수집하는 그런 것이 오늘날까지 가지고 있는 대략 460점이 되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미술관내에는 어떻게 이게 한국화이면 한국화, 양화면 양화, 별도 전시관이 있는 것입니까?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그것은 아직 집을 짓고 있으니까요.

○車星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것이지요, 앞으로?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그것은 그런 양식별로 가르지 않고요, 어떤 흐름이라든가.....

○車星煥 委員; 어떤 흐름요?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재별로 가르지를 않고 한국화, 양화 하는 것은 소재별로 가를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화에도 한국화식 표현방법이 있는 것이고 또 한국화에도 서양화식 표현방법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소재별로 구별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료로서 구별을 하지 않고 모두 다 혼재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층에 어디 전시실을 가면 한국화, 양화, 이렇게 되지요?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그렇게는 안 합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공예나 서예, 조각은 어떻게 합니까, 판화?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혼재시킬 테니까요. 조각실에 가면 조각만 있고 양화실에 가면 양화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방에 양화도 있고 한국화도 있을 수가 있고 조각도 있을 수가 있고 판화도 걸릴 수가 있고 그런 유형으로 전시구도를 하려고 합니다.

○車星煥 委員;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미술관장님의 계획이신지?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그러니까 아직은 저 자체가 전시공간이 대충 각층마다 약 300평 가량, 약 1,000평입니다, 전시공간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만 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460점 정도를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그것도 작품

을 수적으로나 아주 미숙하니까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지요.

○車星煥 委員; 지금 관장님, 내년 4월에 개관이지요?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그렇습니다.

○車星煥 委員; 내년 4월에 개관이어서 지금 설계가 완공되어서 한참 공사중이고 올 연말이면 준공이 되는 거죠?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런데 만약에 이 작품들을 전시할 때 전시내용에 따라서 전시실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요?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車星煥 委員; 그러면 그림이나 조각이나 공예나 서예나 구별 없이 넣으신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방마다 전시실마다 똑같이 해 놓아도 되겠네요?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시공간을 크게 나누면 각층에 2개씩이니까 6개가 됩니다. 그러면 3층은 상설전시관, 늘 작품들이 걸려 있는 그런 방을 만들 경우에 그렇게 되고요.

1층하고 2층은 계획전 수준으로 해야 되니까 계획전을 할 경우에는 전관을 쓰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車星煥 委員; 아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구별이 안되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 물론 그림이 걸려 있는데 조각을 가운데나 1.2개 놓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판화를 또 함께 걸어놓고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아니,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무

결정이 안 내린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돼요.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집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작품에, 그러니까 첫째 자료가 없습니다.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모아놓아야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전시구성을 한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車星煥 委員; 아니, 관장님. 자료가 앞으로 계속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네.

○車星煥 委員; 지금이야 689점밖에 없지만 국립 현대미술관이 4,000점이 있잖아요, 광주시립미술관도 3,000점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미 앞으로 3,000점, 4,000점 있을 것을 예상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수용용량이 총 몇 점입니까?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수용용량은 수장고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 수장고의 용량이 약 300 몇 평밖에 없습니다. 작품이 가령 2,000점을 저희들의 목표로 하는데 2,000점을 수장고에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물리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장고에 다 넣을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수장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근처에다가 다시 또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車星煥 委員; 지금 짓고 있는 것의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지금 수장고 용량이 300평입니다.

○車星煥 委員; 점으로 얘기하면?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점수가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2,000점을 다 수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계획은 지금 2,000점입니다만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광주가 3,000점이고 과천은 4,000점이 아니라 아마 7,000점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車星煥 委員; 좋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만약에 2,000점이 되었다고 그러면 수장고가 더 확장해야 된다고 이거잖아요?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그렇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 시점을 언제쯤 보십니까?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수장을 하려면 구입도 하고 기증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수장고가 딱 차버리면 더 이상 구입을 할 수도 없고.....

○車星煥 委員; 아니, 그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글썄, 앞으로 한 2년, 1년 그렇게 되겠지요.

○車星煥 委員; 그러면 1.2년 후에 그렇게 된다면 또 이것 증축계획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까?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이전은 아니고 수장고를 다른 용도의 공간을 수장고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車星煥 委員; 다른 용도는 남아 있습니까?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용도는 남을 리가 없지요. 건축 자체가 4,000평의 건물이기 때문에.....

○車星煥 委員;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또 용도변경을 해서 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그러면 그 작품을 어떻게 합니까, 기증하고 한 작품을? 문제는 이 미술관이 너무 작다 그런 뜻입니다. 부지가 2,700평 대지이기 때문에.....

○車星煥 委員; 시간이 다 되어서.....

(趙養鎬 幹事, 劉俊相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養鎬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養鎬 委員; 趙養鎬 委員입니다.

저는 세종문화회관 총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0년도의 주요업무실적을 보니까 시민을 찾아가는 현장공연 해서 구민회관 공연을 주요업무실적에 넣으셨거든요. 이것을 몇 번이나 하셨지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11회 했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총감독님께서 더 확대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래서 그 확대가 하나가 추가되었습시다만 12회로 금년도에.....

○趙養鎬 委員; 12회. 그러면 횟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5개 자치구를 가서 공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미리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각 구청에 공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 쪽에서 언제쯤 자기네에 와서 해 달라는 그런 협조공문이 오면 그때 이제 대화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한 12번 정도 25개 자치구에 가서 공연을 한다, 그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네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趙養鎬 委員; 그러면 어떻게 구민회관 공연을 협의를 할 때 대개 구청 측하고 협의를 하시지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구청에서 하게 되면 구청에서 또 문화원에 협조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협의를 하지요.

○趙養鎬 委員; 그런데 문화원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대개 구청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문화원에서 불만사항들이 그것이더라고요. 구청 측하고 세종문화회관, 또 서울시 문화관광국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대개 구청에서는 문화예술행사를 할 때는 구청장의 홍보역할이라든가 또는 문화예술보다는 어떤 전시성 행정 또는 구청에 하나의 관례적인 행사, 이런 쪽으로 많이 구의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화원에서는 차라리 세종문화회관이나 서울시 문화관광국에서 자치구의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한 20여 개가 되더라고요, 서울시내 문화원들하고 그 구청을 배제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문화원하고 독자적으로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문화원에서는. 총감독님께서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복안은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시의원님들이 관계되는 그 지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의 구청하고 협의하는 것이 오히려 시의원님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문화원에서 접촉한다면 또 문화원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趙養鎬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자치구별로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다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요. 문화원이 한 20여 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다 되어 있습니까, 25개 자치구별로?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25개 문화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趙養鎬 委員; 아니,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각 자치구별로 문화원이 하나씩 다 만들어져 있어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趙養鎬 委員; 그러지는 않을 텐데…….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죄송합니다. 18개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제가 기억하기로도 25개 자치구에 다 하나의 문화원이 있지는 않더라고요요. 만들려고 하는 데가 한 7개 정도 있고 그래서 그쪽 문화원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문화원만 형식적으로 만들어졌지 문화원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문화예술행사를 독자적으로 치루지는 못하더라고요요.

그래서 대개 자치구의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자치구 문화체육과는 어차피 공무원이니까 문화예술보다는 주민들을 많이 모아놓고 어떤 구정홍보라든가 거기다가 부수적으로 문화예술, 문화예술행사가 주가 아니고 구청의 홍보가 주고 부수적으로 문화예술행사를 형식적으로 끼워넣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요.

그래서 우리 總監督님께서서는 상당히 문화계에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18개 문화원의 문화원장님들을 한번 같이 만날 수 있는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총감독님께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趙養鎬 委員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문화원 원장들 모임을 가져서 우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도울 수도 있고 또 문화원에서도 세종문화회관에 협조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그럴 수도 있죠.

○趙養鎬 委員; 아까 2001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회원가입을 확대하신다, 600명에서 2,500명. 회원가입비가 1인당 얼마씩입니까? 이것이 딱 단일화되어 있어요, 아니면.....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회원가입비는 3만원부터 5만원으로.

○趙養鎬 委員; 3만원에서 5만원인데 지금까지 600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회원이 그렇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래요? 왜 그것이 안 늘어나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인터넷을 통해서 한 것은 인원이.....

○趙養鎬 委員; 좀 늘어났겠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실질적으로는 600명입니다.

○趙養鎬 委員; 600명이요? 그런데 회원이 적은 것 같지는 않으세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적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런데 적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 동안 世宗文化會館에 대한 선호도가 작았던 거죠. 이제 계속해서 늘릴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래서 제가 총감독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세종문화회관에서 문화원에 도움을 주는 것도 있을

지 모르지만 문화원에서 또 세종문화회관에 도움을 줄 수도 있거든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저희 지역 중랑구에 중랑문화원이 있는데 거기 회원이 한 1,000여 명이 되고 이사진, 감사진, 임원진만 해도 한 150명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같은 경우는 충분히 세종문화회관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에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고 예술에 대해서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없어서 회원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회원에 가입을 하는 절차를 몰라서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화원장님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다보면, 세종문화회관에 이리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홍보도 하고 또 회원에 가입 좀 해 달라고 그러면 문화원장님들이 가서 자기 지역에 문화원의 이사진들, 감사진들 하면 저는 충분히 몇 천명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좀 하루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직터널 위에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회과학센터 역할을 해요. 사회과학연구협의회, 정치학회, 이런 협의체들이 사회과학도서관에 모여서 있어요. 모여서 있기 때문에 자주 모여서 논의도 되고 사회과학 분야에 대해서 토론도 하는 장을, 만들어줬거든요, 사회과학도서관이.

우리 세종문화회관도 물론 공연도 해야 되고 문화예술행사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센터의 장, 서울에 문화센터의 장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더 문화원 식구들이 세종문화회관에 와

서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홍보도 할 수 있는 장을, 터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렇지 않아도 趙養鎬 委員님께서 구청 지역순회공연 관계를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있고 해서 이번에 강남문화원장이 서울지구문화원연합회 회장이 됐어요. 그분하고 제가 의견을 나눴어요. 우리 문화원들 한번 모이는데 적극 나서라 했더니 자기가 당장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건데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용기를 갖고 하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추진하셔서 世宗文化會館이 서울의 문화센터의 장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역할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에 가면 문화예술행사가 끊임없이 공연도 하고 또 가면 문화에 또는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광장역할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알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리고 지금 화장실을 고치고 있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趙養鎬 委員; 신문에서 한번 보셨습니까, 비싸다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어제께 동아일보에 19억이 비싼 것처럼 났는데 사실 19억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데 내용 보니까 또 잘 써줬어요.

○趙養鎬 委員; 제목은 비판적으로 썼는데 내용은 좀 보다 보니까 이해하는 측면에서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부수적으로 여쭙보는 것인데 남자화장실에는 유아변기 이런 게 되어 있어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남자화장실에는 없고 대개 엄마들이 데리고 오기 때문에 여자화장실에 남자유아변기를 해놨어요.

○趙養鎬 委員; 대개 여성화장실에 유아변기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요새는 나홀로 부모들도 많아요. 맞벌이 부부도 많기 때문에 대개 아빠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가서 공연도 보고 또 제가 교보문고에 가보면 아빠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불만이 뭐냐 하면, 유아용 변기가 없대요, 남자화장실에. 그래서 요새 지역에 할인매장같은 데 가보면 남성용 화장실에 다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성용 화장실에 유아용변기 또 아빠들이 와서 유아들을 예를 들면 기저귀를 갈아준다든가 하는 그런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꼭 여자들만 요새 안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알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리고 전통국악공연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에서 보면?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것은 저희가 4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趙養鎬 委員; 그런데 외국인들은 몇 분이나 오세요, 주로 1회 공연에?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작년에는 난타라는 것을 가지고 죽 했는데 외국인은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한 열댓명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데 거의 없어요.

○趙養鎬 委員; 잘 안오시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趙養鎬 委員; 잘 안 오시는 이유가 어떻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아직까지 외국인에게는.....

○趙養鎬 委員;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안되어 있죠. 그래서.....

○趙養鎬 委員; 홍보방법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보셨어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홍보방법은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 또 요즘은 HO-PO라고 어너러리(honorary) 포스트(post)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600회 시향연주회 때는 최불암 씨가 그러니까 소위 하우스 매니저죠.

그것이 이제 HO-PO라는 이름을 따서 어저께 그것이 KBS에 자세히 났는데 또 어제 저녁에는 청소년교향악단 행사에 서유석이라는 가수가 어린이들하고 많이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했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달에는 앙드레김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세종문화회관에 가면 뭔가 볼거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도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고.....

○趙養鎬 委員; 전통국악공연은 내국인들 관람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외국인들을 주목적으로.....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것은 지금 현재는 안하고 앞으로 차차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다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되죠.

○趙養鎬 委員; 그런데 전통국악공연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을 좀, 세종문화회관에 저도 가끔 가보면 외국인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영어나 원어로 연극공연이랄까 공연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전통국악예술공연같은 경우는 충분히 외국인들한테는 호기심으로 와볼 수 있거든요. 와볼 수 있

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부분을 이제는 문화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의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항이라든가 또는 여행사라든가 아니면 요새 서울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되지 않습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그것을 앞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趙養鎬 委員; 서울시 시티투어에 세종문화회관을 홍보하면서 거기다 전통국악예술공연을 홍보를 하면 저는 충분히 외국인도 올 수 있지 않을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래서 저희가 호텔마다 공연 안내판을 줘서 특히 플라자호텔은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1년에 몇 회씩 플라자호텔 앞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

○趙養鎬 委員; 아니, 플라자호텔하고 자매결연을 맺으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특정한 한 호텔하고 어떤 자매결연 형식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시티투어 외국인들이 주로 와서 아니면 덕수궁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관광안내소가 인사동이라든가 이태원,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장소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팸플릿이라든가.....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거기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관광코스로.....

○趙養鎬 委員; 아니, 여행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서울

시에 있는 관광안내소 인사동에도 있고 이태원에도 있고 남대문에도 있고 관광안내소가 외국인들이 많이들 가는 요소요소에 많이 있어요. 있어서 외국인들한테 관광안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비용이 안들면 거기다 세종문화회관을 외국인들한테 홍보하는 팸플릿같은 것 또는 전통국악예술공연같은 것 시간대하고 공연내용같은 것들을 이렇게 팸플릿 형태로 갖다 놓으면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내국인들도 와볼 수 있게끔 문화원에다 팸플릿을 비치해 뒀으면 좋겠어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알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시립박물관하고 시립미술관 두 분 관장님들한테 질의드리겠는데 개관홍보물 제작해서 시립박물관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미술관도 보니까 홍보리플릿을 보면 똑같거든요.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그런데 이것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4개 국어로만 만드는 홍보가?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앞으로는 더.....

○趙養鎬 委員;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서울에서 큰 국제행사가 2002년월드컵 아니겠습니까? 축구에 관심이 많은 나라는 물론 전세계 다 관심이 많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유럽쪽 아니겠어요. 독일이라든가 또는 블란서라든가 또는 이태리라든가 이런쪽 사람들이 사실 축구에 관심이 많을 것 같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직접 비행기타고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사

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알겠습니다. 그것은 곧 최소한도 3개 국어는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래서 유럽쪽에.....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독일, 불어, 스페인어가 꼭 필요합니다.

○趙養鎬 委員;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 때문에 그러신건가?.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아니오, 그것은 그렇게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박물관도 어떻게.....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저희 경우에는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우선 따랐는데 지금 趙養鎬委員님 말씀대로 몇 개 국어를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월드컵, 우리가 흔히 사업쪽으로 경기를 누리려고 그러면 유럽인들이 가장 많이 올것 같아요, 축구를 관람하기 위해서. 와서 세종문화회관도 좀 가보면 시립미술관도 가보고 박물관 가려면 독일어라든가 또는 불란서, 스페인어 또 이태리어 이 정도는.....

○市立美術館長 李鍾宣;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네, 알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리고 박물관개관기념특별전에서 가칭 그게 뭐죠?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규방문화전요.

○趙養鎬 委員; 규방 명칭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지금 저희가 가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감각적인 전시 테마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주제는 규방문화전으로 하지만 전시제목은 저희가 아직 정하지 않고 특히 젊은 층에 호소력이 있는 쪽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거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여성용품이 주인데요. 조선시대의 여성의 복식, 장신구, 또 여성문화 등등해서 여성관련문화를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趙養鎬 委員;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신분제사회였는데 계급적으로 양반층도 있고 또는 상민층도 있고 여러 계층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로 어느 대상을 놓고 전시를 하는 겁니까?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지금 대상을 한정하지는 않았고요, 궁중여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양반의 부인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기녀라든지 상민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실제로는 신분별로 나누어서 전시할 수 있을 만큼 유물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여성들 전체적으로요?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네.

○趙養鎬 委員;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염려스러운 것이 대개 조선시대 때 이런 유물들을 전시하다보면 대개 궁중의상, 또는 상류층의 의복이라든가 또는 생활양식 이런 것들만 대개 전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오히려 역동적으로 많은 대중들이 와서 보려면 그 당시의 우리의 상민층들이 대다수가 상민층이 아

니었겠습니까, 그분들의 소박한 의상들을 그렇게 전시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네, 다양하게 넣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리고 미술관장님, 개관전으로 한민족의 빛과 색 준비를 하신다고 그랬죠?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네.

○趙養鎬 委員; 그것은 어떻게 관장님 아이디어십니까, 아니면 어떤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신 겁니까?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현재 미술이 하도 어려우니까 관념적인 것을 배제하자니깐 그렇게 비꼬아서 하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趙養鎬 委員; 관장님 생각이십니까?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제 생각입니다.

○趙養鎬 委員; 관장님 혼자.....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그런데 그것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플랜이. 한 이 정도 됩니다.

○趙養鎬 委員; 제가 생각할 때는 관장님의 아이디어가 있으시겠지만 개관전 같은 경우는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물론 준비위원회가 있고요.

○趙養鎬 委員;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고.....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아이디어는 지금 한 10개 가량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다가 결국 그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趙養鎬 委員; 그래요. 하여튼 간에 관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볼 때는 논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 보고 또 논의도 해 보고 토론도 해 보고 또 비판도 해 보면서 정했으면 좋겠

어요.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미술관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좌 같은 것을 하고 있지요?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그것이 무료강좌인데 사람이 하도 많이 와서요,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을 제한하니까 높은 데서 자꾸만 견제가 들어옵니다.

○趙養鎬 委員; 높은 데서요?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네, 하루에 몇 번씩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런 부분밖에 강좌를 할 수가 없는데 자리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 넣어라, 저런 사람 넣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치가 아픉니다.

○趙養鎬 委員; 차라리 그러면 유료화는 안 되는 건가요?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그것은 신관에 가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미술아카데미도 창설하고요.

○趙養鎬 委員;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 호응을 하니까 괜찮네요.

○市立美術館長 柳俊相; 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이 도와주십시오.

○趙養鎬 委員; 박물관도 그런 강좌를 하고 있습니까?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우선 작년도에 초등학생을 상대로 연 만들기를 연 제작 문화재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와서 강의를 하고 실제 연을 만들고 나가서 연을 날리고 하는 것을 해 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 그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을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부가 함께 와서 참여하는 교실도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반응을 테스트하는 정도로 내년도에 들

어가서 본격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趙養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미술관처럼 어떤 강좌, 미술사 강좌 등 박물관, 저도 박물관하면 유물들이 있겠지 뭐 이렇게 하고 잘 모르거든요. 박물관에 학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물사라든지 그런 시민들한테 교양강좌 형식으로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아 가지 않겠습니까?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요전에 저희가 한번 그런 안을 냈었더니 일부에서 시립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겹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부 철회했었지만 저희가 별도로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박물관에 무슨 학이라고 합니까, 고고학인가요?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고고학, 미술사학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런 것들을 가서 배우고 또 강좌도 듣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되면 학생들도 그렇고 또 일반시민들도 가서 강좌도 듣고 그래야 박물관에 대해서 애정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세종문화회관 총 감독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후원회 있지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委員長 劉俊相; 후원회를 5월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진척은 되고 후원회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까?

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아직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일체 보완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후원회가 과거에 예술의 전당에서 제가 후원회를 할 때 미리 얘기하면 오히려 더 불편한 점이 있어서 회장 될 분을 미리 선정해 가지고 그 분은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분 중심으로 해서 맨투맨으로 지금 한 30여 명은 내막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준비위원회를 이제 정식으로 소집을 해서 그 다음에 발기총회를 갖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5월에 하는 그 계획으로 지금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알겠습니다.

車星煥 委員님 질의해 주세요.

○車星煥 委員; 그 후원회와 관련해서 좀더 확인을 하겠는데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후원회를 만드는 것이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것은 어떤 특별한 법적 근거는 아니고, 저희 문화예술단체 기관들이 대체적으로 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 후원회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으로 세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에 지금 후원회가 3년 전에 제가 있을 때 구성을 해서 지금은 약 180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7억 8,000만원을 기금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세종문화회관도 예술의 전당과 버금가게 후원회를 결성해서.....

○車星煥 委員; 잠깐만요. 그 후원금을 걷게 되면 후원회 회장 통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아니지요. 후원회에 회장이 아니라 후원회사무국이 생겨서 거기 세종문화회관의 별도계

좌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車星煥 委員; 그 사무국은 언제 설치하실 것이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것은 저희가 구체화될 때 세종문화회관 내에 우리 직원이 사무국장의 역할을 겸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사람을 쓴다는 것이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직원으로 하여금 겸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車星煥 委員; 아니, 예술의 전당도 물론 하셨으니까 그것을 여기에도 대입시킨다는 것인데요. 그 사무국의 설치를 그러면 총감독님 재량 하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사장 재량 하에서 하는 겁니까? 누가 지금 이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무국 설치나 후원회 설치하는 것을?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것은 총감독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추진하시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고, 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혼자 결정하신 겁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車星煥 委員; 그래서 이 후원금을 결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어디에 쓰실 것인가요, 후원금을?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것은 기금화해서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먼 훗날에 자립도를 높이는 데 그 기금을 가지고 또 종자금으로 조금씩 기금을 높여 가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무엇에 쓰겠다 하는 계획은 전혀 없고요. 기금 확보하는 데 전력투구할 예정입니다.

○車星煥 委員; 기금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시는데요. 지금 총감독님은 여기서 1급이시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런 것이 없습니다.

- 車星煥 委員; 여기 직제에 나와 있는 급수로 따지면 1급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글썬, 그런 것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 車星煥 委員; 그러면 지금.....
-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이게 사장급이거든요. 재단법인의 총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 車星煥 委員;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1급, 2급, 3급의 구분은 어떤 의미지요?
-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이것은 우리 직제상의 부장급이 1급이고요, 저는 별정직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장입니다.
- 車星煥 委員; 직제상에 총감독은 사장이라는 것이지요?
-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 車星煥 委員; 지금 총감독은 누가 임명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이사회에서 호선해서.
- 車星煥 委員; 이사회가 몇 명인가요?
-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15명입니다.
- 車星煥 委員; 일단 그 이사회 자료로 명단 좀 주시고요. 운영위원회 명단도 좀 주시고요. 여기서 호선해서 총감독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 車星煥 委員; 임기는요?
-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3년입니다.
- 車星煥 委員; 만약에 총감독님이 임기가 끝난 다음에 이 후원을 해체한다거나 그러면 후원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것은 저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것은 세종문화회관에 귀속된 후원금이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되었던 그것은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요, 세종문화회관에 귀속되는 것이니까요.

○車星煥 委員; 세종문화회관에 귀속되면 누가 받는 것이지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재단이 받는 것이지요.

○車星煥 委員; 재단으로 귀속시킨다는 것이지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재단 정관 내에 후원회가 있습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것은 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정관에 되어 있고 또 조례도 나와 있습니다,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車星煥 委員; 그 정관도 좀 주시고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車星煥 委員; 조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관에 의해서 한다 이거지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車星煥 委員; 회장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아직 임명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진중에 있고 막후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車星煥 委員; 교섭중이라는 것이지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車星煥 委員; 받기해서 정식으로 되면 한다는 것이지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車星煥 委員; 알겠습니다. 추후로 진행되는 것을 봐서 이것

은 확인하기로 하고요.

건의사항에서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예산 조치 요망해 가지고 271만원을.....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270억원.

○車星煥 委員; 여기에는 271만원이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올해 개.보수를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지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49억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지금 49억 들어가고 향후에도 또 27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것은 별도입니다, 리노베이션하는 금액인데.

○車星煥 委員; 그런데 물론 20년이 20년이 지나서 노후시설을 교체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오는가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제가 1999년 7월 1일부로 취임했을 때 그 당시에 서울시 사업소에 있을 때 세종문화회관 정밀진단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2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0억이 지금 물가상승률을 따져 보니까 270억이 된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70억을 요구를 한 겁니다.

○車星煥 委員; 좋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게 없기 때문에 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확인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감사가 한 분인가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두 분 있습니다.

- 車星煥 委員; 감사를 한 적이 있나요, 지금 까지?
-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작년에 했습니다.
- 車星煥 委員; 작년에 언제 했나요?
-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회계감사를 작년 3월에 했습니다.
- 車星煥 委員 7월에 한 것은 뭔가요?
-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도감사를 한 것이고.....
- 車星煥 委員; 지도점검은 7월에 서울시에서 했다 이거죠?
-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 車星煥 委員; 지금 감사 여기 나와 계신가요?
-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안 나오셨습니다.
- 車星煥 委員; 그러면 회계감사한 감사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마련해서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 車星煥 委員; 그리고 탑골공원에 시굴조사한다고 市立博物館에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環境管理室에서 무엇을 어떻게 확인한 건가요?
-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확인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환경관리실에서 이런 의뢰를 했냐 이거죠?
-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원래 금년 8월 15일에 서울시에서 탑골공원의 성역화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그러합니다.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 상당한 조경을 해야 되는데 땅을 건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건드릴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긴급위촉을 하게 된 셈입니다.

○車星煥 委員; 알겠습니다.

전시시설공사 추진현황해서 사업비가 135만원에서 계약금액이 95억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됐나요?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사업비 책정은 저희가 설계에 나온 것을 원가계산해서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일단 135억이라는 금액이 됐습니다만 그것을 발주를 저희 임의로 할 수가 없고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더니 1차 유찰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28일자에 1차 유찰이 되고 그럴 경우에 한 달 이내에 다시 재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재입찰에서 다시 유찰이 되면 임의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가 돼 있었는데 재입찰에서 낙찰가액을 95억을 써넣은 시공테크가 점수를 제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車星煥 委員; 알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화재사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언제 받으셨나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매년 2번씩 받습니다.

○車星煥 委員; 작년에 2번째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10월에 받았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지금 화재난 원인이 MBC쪽 잘못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화재가 자재에서 났습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때 MBC가 주관하는 그 행사의 조명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의 그린조명사로 양쪽탑을 세우는 조명을 들여왔습니다. 그 조명하고 MBC가 제작한 무대장치 속에 차막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조명

하고 닿아서 그것이 열이 나서 화재원인이 발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지금 세종문화회관 개보수를 올해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화재안전과 관련해서 특별한 자재나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것은 우선 방화담당 직원의 급수를 위급으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체 점검반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대관해서 들어 올 때도 일단 방염장치나 된 필증을 받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방염필증 이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서 방염창지가 됐나 안됐나 그것까지 확인해서 하는 것을 지침으로 내려놨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신가요? 보험은 들었다고 그랬나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보험은 들어 있고요.

○車星煥 委員; 얼마에 들은 거죠, 토털?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토털 760억.

○車星煥 委員; 계약회사는 어디인가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동부화재.

○車星煥 委員; 누가 계약자가 되죠? 총감독이신가요, 계약자가?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車星煥 委員; 그러면 이것이 갱신은 얼마만에 한 번씩 하는 거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1년씩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동부화재로 정할 때 누가 정하는 거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총감독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車星煥 委員; 총감독이 혼자서 정하는 건가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車星煥 委員; 760억짜리를 총감독이 혼자 정해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 대상이 760억이지 우리가 760억 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내는 것 6,700만원.

○車星煥 委員; 6,700만원을 내고 사고가 났을시에 760억을 받는다?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그 얘기입니다.

○車星煥 委員;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죄송합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6,700만원 이렇게 넣을 때 총감독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렸다 이거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車星煥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조합 설립해서 가입인원이 236명으로 되어 있네요.

236명은 예술단체회원들까지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236명이 나온 거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236명 될 리가 없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車星煥 委員; 노동조합 설립해서 가입인원이 236명.....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당초에 236명으로 했다가.....

○車星煥 委員; 예전에 인원이 많을 당시에?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다 탈퇴해서 지금은 2/3밖에 안됩니다.

- 車星煥 委員; 지금 몇 명입니까?
-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1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車星煥 委員; 지금 정원이 84명인데 어떻게.....
-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것은 사무국 직원이고 예술단은 360명 TO 중에 298인가 되어 있습니다.
- 車星煥 委員; 예술단?
-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그 예술단만 노조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 車星煥 委員; 지금 우리 9개 예술단이 있죠?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뮤지컬, 합창, 소년소녀합창, 청소년교향악단, 극단, 오페라단 여기 이분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시 산하로 공무원 자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재단법인되면서 저 사람들이 민노총쪽으로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 車星煥 委員; 노조를 결성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102명이요?
-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노조원만.
- 車星煥 委員;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약간 질의가 나왔는데 그 2000년 4월 3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 신청해서 취하를 하셨다고 그랬죠? 그때 취하할 때 요구사항을 어떤 것을 수용하셨나요?
-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부당해고라는 것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부터 그렇게 판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소할 계획으로 있다고, 큰길에서 이렇게 청와대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소극장 사이에 테크플라자 위에 다가 천막을 쳤고 천막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꼭 무슨 만장

기같은 것을 해서 너무나 삼엄한 분위기가 돼서 6월 15일 대통령께서 이북에 가셨을 땐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노조와 협의를 해서 일단 수용을 한다는 조건으로 그 천막을 치우고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좋아, 좋습니다. 부당해고돼서 복직이 됐나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렇습니다.

○車星煥 委員; 몇 명이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아홉 사람인데 한 사람은 그만됐습니다, 자진해서.

○車星煥 委員; 그러면 현재 8명이 있네요?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車星煥 委員; 그 8명이 근무처가 어떻게 됩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그대로 복직을 하는데 4명이 교향악단이고 3명이 무용단이고 그리고 극단에 1명이 있고 그래서 8명이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지금 현재로는 노조관련해서 어떤 쟁점사항은 없습니까?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없습니다.

○車星煥 委員; 평화롭게 노사가 잘 해결해 나가신다 이거죠?

○世宗文化會館 總監督 李鍾德; 네.

○車星煥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1년도 世宗文化會館, 市立博物館, 市立美術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소속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 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125회 임시회는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散會)

○出席委員

劉俊相 趙養鎬 吉基演 金成奎

金星煥 金判吉 盧永奭 柳辰永

劉大運 李康珍 李東秦 車星煥

朴柱雄 李聲九

○專門委員

尹炳國

○出席公務員

世宗文化會館

理事長 表在淳

總監督 李鍾德

市立博物館長 李鍾宣

市立美術館長 柳俊相